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5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방부 소관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다. 병무청 소관

라. 방위사업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1

가. 국방부 소관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다. 병무청 소관

라. 방위사업청 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방부 소관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다. 병무청 소관

라. 방위사업청 소관

○위원장 성일종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23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박범계 위원 박선원 위원 안규백 위원 유용원 위원 추미애 위원 황희 위원 및 본 위원 등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간부 선발 시 AI 면접을 도입한 인사정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적 오류 등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대부분의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 이기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신중 있게 재검토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기관 기본경비사업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소속 3개 TF를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채용률이 저조한 민간조리원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용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10건, 주의 9건, 제도 개선 34건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된 대로 집행하지 않은 병무행정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목적 외로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요구하였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가 문제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재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1건, 제도개선 11건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함구조함-Ⅱ사업에 대해서는 다수의 평가 항목과 국외 기술지원 필요 항목으로 구성된 시험평가의 경우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신속획득-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사업에 대해서는 내역 변경 등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보라매사업은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축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한 조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시정 5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15건 등 총 4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강대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7분 주시지요.

○**위원장 성일종** 결산이니까 5분 하시지요.

○**김병주 위원** 한 번 하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시지요. 그러면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에는 가급적 결산 관련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지요? 안보실장님, 아니면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무래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국방위에 나온 만큼 장관 부르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여기는 국방부장관 자격이지요.

○**박범계 위원** 법률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안보실장 겸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당연히 그냥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겸임하고 계시는 건지.

○**국방부장관 신원식** 겸직을 하지 않게 하는 규정이 없고 또 잘 아시겠지만 2014년 6월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겸직한 적이 있는 그 예를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우리가 형벌법규 같은 경우에 근거 법규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듯이 국가기관, 기구의 창설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고 그래서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 조직 법정주의에 의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국방부장관께서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쭙보니까 ‘서운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헤어지는 게 서운하다고도 생각은 하셨겠지만 국방부장관 하시다가 내일모레 인사해야 되는데 지금 안보실장 가는 게 서운하지 않으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아까 서운하다고 한 것은 사실은 제가 21대 국회의원도 하고 또 장관도 한 1년여 해서 거의 한 4년 반 동안 국방위만 있었는데 사실은 위원으로서도 장관으로서 그 면에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좀 섭섭했다는 소회를 드렸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전의 경력까지 다 합쳐서 국회의원을 한 번 하시기는 했지만 외교 업무에는 문외한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직접 업무를 다룬 적은 없고 같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간접경험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NSC 상임위원회가 외교안보에 우리나라 최고 대통령을 보좌하기는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기구로서 그 상임위원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방일변도의

NSC 상임위원회 운영은 안 되는 거지요, 국방적인 관점으로만의 상임위원회 운영은?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당연히 그렇고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또 충분히 배려를 하고 또 외교 전문가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적어도 NSC 상임위원회 즉 안보실장, 위원장이 되는 안보실장 자리를 민간 외교관 전문가들을 죽 썰 오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할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분들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전쟁의 위험성까지 강조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외교의 방법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할 나위는 없지요.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안보실장으로 가시더라도 적어도 국방 이전에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적어도 그 두 가지가 병행·조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제 당부를 유념하여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레이몽 아롱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프랑스 국제정치학자는 국제관계는 디플로매트(diplomat)와 솔저(soldier), 그러니까 외교관과 군인이라는 두 개의 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감각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혹시 외교에 대한 질타가 있을까 봐 준비를 좀 해 오신 것 같네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닙니다. 평소 생각입니다.

○**박범계 위원** 국방부장관님, 결산과 관련해서 작년도, 올해 지금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추진한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합참으로 연쇄 이전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합참을 남태령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은 지금 신임, 사실 신임도 아니지요. 지명받고 아직 임명받지 않은 지금 국방부장관후보자가 그러한 안보 위해 요소에서가 한 자리에 공동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가시화됐는데, 예산과 결산에 합참의 남태령 이전에 관한 단 1원조차도 계상되지 않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들여서 합참을 이전하지 않아도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된 그 에어리어에 대통령, 국방부 그리고 합참 등등이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까지 한번 답을 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산 문제는 지금 산정을 해서 사타에 들어갈 준비를, 사타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박범계 위원** 준비하는 데 2년 걸렸습니다. 지금 준비조차도 안 돼 있고 기재부에 얘기하면 타당하지 않다. 타당성조사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반려하는 차원이예요. 거기까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닙니다. 2년이 걸린 것은 여러 가지 시설과 특히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해서 전략사령부 위치를 이전하는 합참과 같은 위치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한 재판단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고요.

○**박범계 위원** 합참 이전 계획은 분명하게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지금 사타 들어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들어가 있는데 계속 기재부로부터 거절된……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닙니다. 기재부 거절한 것 없습니다. 사타 끝나고 내년부터 예산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박범계 위원 기재부 공문을 한번 받아 보세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방금 확인하니까 사타는 정기사타가 9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9월에 올릴 예정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이전할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겠다 이런 작정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왜냐하면 사전타당성검사가 끝나면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회 심의 과정을 내년에 거치게 될 겁니다.

○박범계 위원 안보실장으로 가시는데 지금 두 가지를 다 겸직하고 계시는데 모쪼록,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헤어지는 것 자체가 좀 서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안보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보좌가 아니라 헌법상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의 중요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적어도 안보와 외교를 함께 병행하는 그런 현명한 안보실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명심하고 국방위원님들의 지해도 항상 제가 열린 마음으로 고견을 듣고 국정에 잘 반영해서 대통령님 잘 보좌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가시지 말고 안보실장 하셨으면 더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포천에 있던 수송대대가 별내면 탄약대대로 이전하는데 17년 국방계획에 따라서 총사업비 305억 원을 투자해서 부대 이전 준비를 하고 올해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아주 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민 공청회라든가 협조 이런 것들이 일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보고받으셨지요? 지난번에 저도 한번 문제 제기했었고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도 아예 공청회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서,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께서는 1차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어요. 그것을 아마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 한 이후에도 해답이 없어서 2차 공청회를 한 번 더 주민 건의사항을 가지고 장관님과 육군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답을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그 답이 안 오고 있어서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다시 임무를 주셔서 주민들의 얘기를 귀담아듣고 검토해서 2차 공청회를 빨리 와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장관님 계실 때도 제가 한번 문제 제기했던 거고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 청문회 때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때 과행이 돼서 제가 질의를 못 한 게 하나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이슈 중의 하나가 김용현 후보자가 경호처장 당시에 경호처장 공관에 3개 핵심사령부,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을 저녁에 불러서 모임을 했다 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 이런 제보들이 있어서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김용현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답변을 안 했고, TV조선인가 어디 모 언론사에 나가서 언론사에는 ‘경호 목적인 모임인데 이렇게 탄핵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김용현 후보자는 이 모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경호 관련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는데,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방사·특전사·방첩사는 경호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관례로 경호처장이 적절한 접촉 유지나 격려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한 활동이 있을 때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수방사령관은 장관께서도 수방사령관 할 때는 아마 수방사령관 병력의 많은 병력이 경호에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건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장관께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장관 허락 없이 특전사령관 이렇게 세 명이 모인 적은 제가 확인해 보니 없었다고 그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전사는 늘 가실 때 외곽 방호를 하고 또 잘 아시는 707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들이 늘 있고 그다음에 방첩사에는 아예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방사령관 할 때도 수방사·특전사·방첩사는 그때는 아주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고 격려를 했고 최근에는 그게 없어졌는데 부정기적으로 하고 그것도 문제인 정부 때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경호에 관계된 활동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쩌다 한번 소통과 격려를 할 때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제가 승인을 합니다. 언제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병주 위원** 경호에 대한 것은 회의를 한다면 국방부장관한테 협조를 하고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내리고, 이 사령관 세 명만 가서는 안 되고 사실 합참의 정책실장이나 관련 국장급이 갈 거고 합참에서도 부장이나 처장이나 본부장급이 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지침을 내리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사무실도 아니고 공관에 이렇게 은밀하게 모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군의 지휘체제를 대단히 문란시키는 행위다. 만약 그것을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장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병무청장님 경호처 차장을 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 병무청장이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승인 없이 경호처장이 군부대를 모은 적이 없고요. 다 저한테 사전승인이 오고

제 승인하에, 옛날처럼 주기적으로 매달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격려성 회의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승인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승인한 근거가 있나요? 이런 것 할 때는 사실은 경호 목적의 회의라고 하면 회의에 내려갈 때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공문이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회의 자체가 저한테 구두로 승인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장관이 국민 앞에서…… 제가 어디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승인했다는데 그걸 근거를 대라고 그러시면 그 자체가 좀 너무 황당한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은 육군총장의 부하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합참의장에게 작전을 통제받고.

그러면 여기 육군본부나 저기 온 분은 없지요? 육군총장이나 이런 분한테도 보고를 하고 갔다 온 이후에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러한 절차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근거들이 좀 필요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위원님, 후보자도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게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국민이 승인하겠느냐, 군이 따르겠느냐? 나도 안 따르겠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이제는 일을 마무리지으셔야지, 그 활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누구를 찾고……

장관인 제가 총괄적으로 허락했다고 그러면 좀 믿어 주십시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1분만 더 줄래요? 병무청장한테 경호차장 할 때 이것 잠깐 물어보게요.

○**위원장 성일종** 예, 그러시지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병무청장님, 경호실 차장 할 때 이런 모임이 1년에 몇 번씩 있었나요?

○**병무청장 김종철** 사령관들 모임은 간헐적이었고 직접 경호 행사를 담당하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경호 직접 하는 회의는 하는데 이렇게 3명의 핵심 사령관을 모아서 이런 모임은 한 몇 번 정도 있었나요, 1년에? 관례적으로 했다 하잖아요.

○**병무청장 김종철** 예?

○**김병주 위원** 관례적으로 했다고 국방부장관이 얘기하시는데 몇 번 정도……

○**병무청장 김종철** 관례라는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1년에 몇 회를 정해 놓고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부정기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병무청장 김종철** 필요할 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필요할 때?

○**병무청장 김종철** 예.

○**김병주 위원** 그런데 경호처장이 아무리 그래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군 출신으로서 봐도 이것은 군의 위계질서를 흔드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이 알고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까지는 매달 했습니다. 박선원 위원님께서 아마 노무현 정부에서

계실 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고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정부 이후에는 매달 하는 정기적인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격려 활동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엄과 연계시켜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것은 논리를 비약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더 이상 그런 논리 비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경호 작전 부대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영관장교 때 수방사에 근무했습니다. 수방사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경호 임무와 관련해서 경호처장이 직접 회의를 할 때도 있고, 사실 그 당시에 사령관 들하고 수고한다고 국군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밥을 한 끼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인 출신이 장관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걸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군인 출신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트집을 잡든가 뭘 한다 하더라도 할 만한 걸 가지고 해야지, 작전사령관들 하고 밥 한 끼 먹은 걸 가지고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걸 자꾸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국방부장관님, 함께 21대 국회의원을 하고 또 장관님으로서 같이 일하면서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아마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되실 텐데 그동안 신원식 장관님이 뭘 잘했는가. 우선 대북 대비태세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대비태세를 갖췄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군의 작전적인 측면에서 대비태세를 각종 분야에서 견고하게 해 놓고 또 방산수출을 포함해서 해외에 나가는 국방과 관련된 대외업무에서도 상당히 지금까지 튼튼하게 해 놓고, 특히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 문제에 대한 대비태세를 훨씬 강화해 놓은 데 대해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대통령 측근에 가서 모실 텐데 가서서도, 물론 외교 분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먼저 실장이 특보로 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1차장, 2차장 있는데 2차장 밑에는 외교 파트 인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언을 받으면 제가 봐서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 과거에 김관진 장관도, 김관진 장관이 외교관을 한 것도 아니고 합참의장 하고 그리고 장관 하고 그리고 안보실장을 했고 김장수 장군도 국방부장관 하고 안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는 성공적으로 안보실장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의 선배들이 안보실장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고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보 분야가 더 튼튼해지고 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걱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계엄에 대해서 하도 지금 뭐 말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이 불식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또 독도도 ‘독도 지우기다’ 뭐 이래서 누가 뭘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지만 참 터무니없는 이런 얘기도 그렇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요즘 가짜와 그리고 허위가 정말 세상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서 국가 안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고 또 전방에서는 지금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연락을 받고 있는 게 북한에서 대남방송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음악이나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걸 때립니다. 그래서 기계 소음 또 그다음에 동물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저걸 좀 어떻게 막을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기를 한번 개발해 보시지요. 음성을 내보내는 걸 여기서 거기에다 때려서 그 음성, 음파가 망가져 가지고 그 소리가 죽어 버리든가 이런…… 이것도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지금 철원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아주 고통스럽다고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적의 방송하는 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안보실장님으로 가셔셔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장관님을 처음 뵈 게 합참 작전과장이실 때 뵈었는데 그때 이후로 장관님께서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이끌어 오셨다 하는 점에 대해서 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레이몽 아롱의 디플로메틱 솔루션(diplomatic solution)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안보실장이 되셨으니까, 우리 안보를 흔히 이야기할 때 다임(DIME) 요소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디플로머시(diplomacy),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밀리터리(military), 이코노미(economy) 이 전체를 다 활용해서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라고 하는데 이제 안보실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즉강끝’도 중요합니다. 위기에 즉각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즉시보다는 시간을 두고 사태를 파악하고 강력하게 보다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끝까지보다는 가급적 충돌은 조기 종결하는 것이 유엔사 외교를 비롯해서 정전협정의 기본방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이 되셨으니까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 안보를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난 한 10여 년간 돌이켜보면 북한의 다양한 방식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안보 예산과 국방체계가 수립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장억제력 부분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니 조금 더 큰 틀에서 좀 차분하게 우리의 국방전략과 안보전략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정비태세의 구축 그리고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큰 그림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장관님이 안보실장으로 가서 좀 더 큰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안보실장 공관은 어디 있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뭐……

○박선원 위원 경호지역, 지금 한남동 그 지역에 다 같이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쪽은 좀 거리 이격을 하는데 보안 유지가 되는 조그마한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어쨌든 대통령을 언제든지, 새벽 1시든 2시든 즉각적으로 보좌하고 모셔야 되기 때문에 지근 거리에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경호처장이 세 분의 주요 직위자 사령관을 동시에 부른 것은 장관님,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경호안전대책회의에 특전사령관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은 알다시피 차관급이고요. 경호처에는 군사관리관도 있고 경호기획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 그쪽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장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차를 갈아타고 부관과 운전병은 보내고 경호처 차량으로 이승해서 경호처장의 공관에서 세 분이, 장관님께서서는 격려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장관님, 1년에 한두 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장관님 허가를 받으셨으니까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최근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박선원 위원 그러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또 시간이 지났는데……

위원님, 사실은 어떤 만나는 형식, 장소와 관련 없이 이게 계엄하고 경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용현 후보자가 분명하게 자기도 안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종결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박선원 위원 저도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5·18, 고등학교 때 겪었기 때문에 뭐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가장 큰 치욕으로 남아 있기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 24년 지금 이 시기에 계엄이 무슨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다만 그런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승인하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최근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업무,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지방에 가서 큰 행사를 하고 올라오셔서 가지고 격려를 하실 수 있지요, 처장이. 그러나 그럴 경우에 대개 원스타 수준까지입니다. 3개 핵심 직위자 세 분을 동시에 모은 적은 없어요, 장관님. 한 분 한 분은 모실 수 있지만, 그리고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최근 일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님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계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계속, 어떤 괴담이나 선동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계속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후보자가 비교적 독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고 확실하게 지키겠다 말씀이 계셨고 과거 사병 교육자료 이런 것에서 지워지고 한 것 때문에 장관님께서 상당히 곤란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안보실장 그리고 국방부장관후보자까지 독도 수호, 우리 영해·영토 수호에 대한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너무 빠른 말이지만 한번만 확실하다 이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 영토고 독도를 수호합니다. 단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그것은 문제인 정부나 역대 정부 마찬가지로입니다—너무 공개적으로 해서 혹시 일본의 국제 분쟁 수역화에 말려들 위험성은 우리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원 위원** 질문 간단한데 마지막 질문…… 미안합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독도 수호 의지 전혀 변함없습니다. 전 장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선원 위원** 참 다행이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쟁기념관에서 말이지요, 독도 설치물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차관이 나오셔서 가지고 기증자 동의도 받았고 위원회도 했고 조금 이따가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1분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1분 더 쓰시지요.

○**박선원 위원**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맨 오른쪽에 보시면 ‘기증자 동의 과정 없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결재 문서에 독도 부분에 대해서 ‘철거해서 수장고에 격납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내부 중간관리들이 서면으로 저렇게 한 겁니다. 저기에 ‘심의 방법 서면’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김선호 차관이 잘 모르셨거나 그래서 위증을 한 셈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장관님께서 한번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즉 다시 복원해서 설치하겠다는지 또 기증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기증자와 함께 새로운 더 나은 기념물 내지는 설치물로 독도 수호의 의지를 하겠다는지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차관에 대한 위증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논의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지난주에 아마 김병주 위원님부터 몇 분 야당 국방위원 오셔서 현장을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층에 독도 침탈을, 어떤 그것을 하는 상설전시실에 설치하기로 이미 현장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깨끗히 준비를 해서 상설전시실의 원래 목적에 맞게끔 잘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성일종** 예,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길게 이야기 안 하고 계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힘을 가지고 수호를 하는 단체입니다.

또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릴 데도 없고, 내릴 리도 없고 내리더라도 이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발 국군을 믿고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우려, 정치인으로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할 수는 있는데 더 이상 하면 국군 장병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군 장병들의 진정성을 좀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민석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장관, 지난번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이 회의에 못 오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거기하고 안보회의가 있어서 안보실장 대리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김민석 위원 회의가 개최됐던 시간은 국무회의하고 같은 시간이어서 그것 때문에 못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민석 위원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여기 못 오셨을 때는 안보실장 자격으로 가셨습니까, 장관 자격으로 가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둘 다 겸직을 하고 있었으니까……

○김민석 위원 그런데 어떤 자격으로 가셨냐고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병행해서 두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관하는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수석 이상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민석 위원 그날 안보 관련 현안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방 관련해서 제가 발제하는 게 있었고요.

○김민석 위원 법안 2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바로 이어서 안보실과 관련된 회의를 하신다고 이미 공지가 돼서 제가 그래서……

○김민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오전에는 양해를 구했고 오후에 운영위는 참석했습니다.

○김민석 위원 잠깐만요. 국무회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무회의에 이어서 안보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보회의는 몇 시에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무회의 끝나고 11시 한 이삼십 분에 해서 한 12시 몇십 분까지 한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 국무회의를 할 때 안보 현안은 없었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외에 혹시 다

른 부처 법안 제기했을 때 토론하신 것 있는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토론했습니다.

○김민석 위원 아니, 장관께서 다른 부처 법안……

○국방부장관 신원식 저는 발언한 건 없었는데 제가……

○김민석 위원 발언한 건 없고? 됐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시겠지만 국무회의는 안보 현안을 다루지 않습니다.

○김민석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국무회의에서는 안보 현안을 다루지 않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민석 위원 그래요. 아니, 차관이 안 계실 때 중요한 안보 현안이 있었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법안 토론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안 계실 때.

○국방부장관 신원식 토론하게는 돼 있는데 제가 토론 발언을 안 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 계획에 없는 거였고 다른 때는 토론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민석 위원 다른 때는 토론하시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토론할 때도 있고 제가 국방 현안, 국방부장관 때 설명도 하고 합니다.

○김민석 위원 다른 부서 법안할 때 장관으로 계신 때 토론한 적이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왜냐하면……

○김민석 위원 됐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발제하는 게 있고 관련 안건이 있어서……

○김민석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확인하면 되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민석 위원 그날은 어쨌든 다른 부처 법안 토론에 발언하신 것은 없는데 차관 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어쨌든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옮겨 가시니까 상관없겠지만 어떤 현안이 있거나 상황이 있을 때 아래 직원들이 맞지 않는 보고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박선원 위원이 질의했던 경호처장이 관련한 사령관들을 모았던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석 위원 아니, 박선원 위원이 질의했던 사령관들 모인 것 장관께서는 수시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두로 허락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거 경호처 경험이 있는 다른 분들은 그런 게 1년에 한두 번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승인하셨던 날짜가 언제지요? 내용 묻지 않겠습니다, 날짜.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 최근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이라는 게 언제까지지요?

○김민석 위원 그 최근은 제가 모르지요. 본인께서 승인하신 최근이 언제냐고 제가 묻는데 저한테 물으실 일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날짜가……

○김민석 위원 아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최근이라는 게……

○김민석 위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팩트만 물을 뿐이지. 본인이 승인하신 최근 날짜가 언제냐고 묻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은 일일이 제가 확인을……

○김민석 위원 아니, 일일이가 아니라 몇 월이지요? 기억이 안 나는가요? 국방부장관은 주로 최근 기억은 안 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작년 연말인가 하여튼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납니다. 제가 왜냐하면……

○김민석 위원 최근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 최근……

○김민석 위원 아니면 멀어서 기억이 안 나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

○김민석 위원 하여간 최근인데 승인했다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난다? 됐습니다.

김용현 후보자가 계엄에 소위 말도 안 된다 또 나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민석 위원 들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민석 위원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당연합니다.

○김민석 위원 12·12, 5·18이 다 계엄이었는데 당시 우리 군에서 항명한 분이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위원님.

○김민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 12·12는 사십몇 년 전의 일인데……

○김민석 위원 그렇지요? 잠깐만요. 김용현 후보자가……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때는 육사생도였습니다, 제가.

○김민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용현 후보자가 군과 국민의 동의 없이 계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2·12, 5·18 때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군과…… 잠깐만, 답하지 마세요. 잠깐 내가 하나 더 물어볼 테니까.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던 계엄이 있었습니까? 하나 더, 1980년대는 계엄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45년 전의 국내하고 지금과 비교하지 마세요.

○김민석 위원 45년 전에는 계엄을 하고 쿠데타를 할 만큼 우리가……

○국방부장관 신원식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김민석 위원 가치가 없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민석 위원 항명한 사람이 있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역사책 보십시오.

○김민석 위원 역사책을 제가 왜…… 문잖아요, 있냐고.

○국방부장관 신원식 도대체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 가지고 황당무계하게 그만 하시지요.

○김민석 위원 아니, 제가 계엄 묻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장관!

○국방부장관 신원식 위원님.

○김민석 위원 장관!

○국방부장관 신원식 위원님!

○김민석 위원 장관!

○국방부장관 신원식 위원님!

○김민석 위원 장관! 내가 문잖아요. 최근에 모인 날짜가 언제 승인했냐고, 왜 대답을 못 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김민석 위원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은 혼자 생각하시고요. 왜 억지로 계엄을 끌어내세요?

○김민석 위원 국방부장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내일이면 이·취임식을 합니다.

○김민석 위원 좋아요. 자, 그러면 있어 봐요. 잠깐 있어 봐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4년 반 동안 국방위였는데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셔야겠습니까?

○김민석 위원 그 정도 사안은 그냥 구두로 승인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구두로 승인한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 군은 그 정도의 사안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많은 부분을 구두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장관, 내일 이임하실 분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억 안 나서 말 못 하겠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을 전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김용현 후보자와 신원식 장관의 말씀하시는 태도가 동일하군요. 대통령 과도 동일합니다. 국민의 또는 국민의 대리인이 묻는데 너네가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라, 대답 안 하겠다.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구두로 한다. 좋습니다.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석 위원 한 말씀 하지 말고 묻는 것에 대답하세요. 왜 날짜를 말하지 못하고 다 른 얘기만 해요? 그 얘기도 말 못 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2017년에 이것을 일으켜서 아무도, 계엄에 대한 것들이 다 무죄되고

증거불충분입니다. 오로지 당시 기무사만 1400명의 방첩요원들만 파면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또 시즌 2 계엄입니다. 이것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것입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김민석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답하고…… 보충질의할게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안 하겠다고 없었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피담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성일종 정리하십시오.

○김민석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정리하십시오. 그러십시오.

또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할게요.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답했으니까. 다음에 해도 좋아요.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보충질의는 없는데 제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장관님, 국방부장관을 이제 10개월 정도 하시고 떠나시는데 주변의 평을 좀 들어 보니까 상당히 평이 좋아요.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요 그래도 국민의 대표가 질의하는데 국무위원께서 그러시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여쭙보고 싶은 게 지금 국방부 직원들이 몇 군데로 쪼개져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부승찬 위원 국방부가 지금 몇 군데로 쪼개져, 나뉘져 있습니까, 국방부 직원들이?

○국방부장관 신원식 장소를요?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누가 아시는 분……

○부승찬 위원 몇 군데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용산 안에는 별관하고 서너 군데인데 그 외에 바깥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지금 합참이 이전 안 하면 국방부는 재통합 계획이 없는 거더라고요, 예산도 없고.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부승찬 위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다시 말씀……

○부승찬 위원 국방부 재통합과 관련된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방부를 한 군데로 다시 모으는 거요?

○부승찬 위원 예.

○국방부장관 신원식 현재 있는 장소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앞에 나가 있는, 옛날 시설본부에 나가 있는 국방부 인원들은 다시 좀……

○부승찬 위원 불만이 많더라고요. 장관님께서 이제 떠나시니까 신경을 좀 더 써 달라

라는 말씀, 당장에 재통합은 못 하지만 혹시나 근무환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거기 31조에 보면 집단행위 금지 그다음에 31조 2항에 보면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부승찬 위원 장관님께서는 혹시 중요한 군부대에 중요 인물이 방문을 하면 보고를 받으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중요 군부대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부승찬 위원 지작사령관도 있을 거고 방첩사령부도 있을 거고……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가는 것 아니고요?

○부승찬 위원 아니요, 중요한 인물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장관께 보고를 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저한테 보고 들어올 때는 당연히 보고되고요. 나머지 업무 협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느 부대가, 정보부대가 정보본부장한테 간다 그렇게 분리해 보고받지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타 부처의 장관이 가면 그것 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럼요. 그건 당연히……

○부승찬 위원 확인이 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부승찬 위원 장관님께서 부산동성고등학교를 나오셨던데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부승찬 위원 장관으로 재직하거나 장군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고등학교 후배들만 모아서 따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군 후배들이요?

○부승찬 위원 아니, 고등학교 후배들.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게 하면 위화감을 조성하겠지요? 아무래도 장관께서 우리 고등학교……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럴 거라고 저도 보여져요.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특정 부대를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행안부장관이 방첩사령부를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없으시지요?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갖고 방첩사의 충암고 출신 세 명과 식사를 했어요.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장관이잖아요.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요. 이것을 보고받지 못했다면 방첩사령관은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글썄요, 부대에 누가 외부인이 방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행안부장관이 방첩사령부로 방문하는데 그것을 보고 안 하는 게 그게 군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거기서 이상민 장관이 충암고고 방첩사령관이 충암고고. 그렇지요? 거기에 또 충암고 중령과 대령 한 명 불러 갖고 버젓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군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한번 여쭙봤던 겁니다.

그리고요 행안위를 통해서 행안부장관의 군부대 방문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런데 방첩사 방문을 쏙 빼고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요. 그리고 방첩사에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정보수사기관 특성상 제공이 제한된다’. 일반인이 방첩사령부를 가는데 정보 수사기관 특성상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회를 모독한 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는 군부대 방문한 것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방첩사만 숨기고.

이런 것들이, 물론 장관님이 그러신 건 아니야. 아까도 그래서 동성고등학교 모임을 하느냐…… 어느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일련의 일들 그다음에 경호처장…… 저도 전적으로 장관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어떤 군대입니까? 무슨 계엄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흥분하신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방주사의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련의 과정이 다 최근에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국회에서는 지적하지 말고 넘어가야 정상인가……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 세평, 저도 국방부에 근무했었으니까 훌륭하신 분이라고 다 그래요. 장관이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제가 삼자적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보는 장관님의 평가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아쉽기도 해요, 떠나시는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예요. 어떻게 방첩사에 행안부장관이 가는데 장관이 모르고 있습니까? 보직해임시켜야지요. 왜 분란을 일으키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왜 계엄이 나오게끔 하고 계엄 의혹을 갖게끔 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군을 믿지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말씀 백 프로 동의하고요. 안보실 가서도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회의하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장이 사단 2개나 3개 정도를 부대로 편성해서 군단장을 맡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위원장 성일종 또 지금 지작사령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군단들이 함께 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러한 부대가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간혹 회식이라든지 격려 만찬이라든지 뭐 이렇게 군단장이 할 수도 있고 지작사령관이 할 수도 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제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계엄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맞추다 보니까, 장관님께서서는 이것을 너무 께맞춘다 이러다 보니까 좀 언성을 높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옛날에도 그런 회의가 있어 왔고 격려 만찬도 있어 왔고 늘 있었던 일상적인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엄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공격하는 것은 군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도 있고 장병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또 모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김민석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너무 격한 반응을 보인 점은 여기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굴거나, 물론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편하지 않은 모습 보여 드린 점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좀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의외로 군이 정치적으로 개입한다, 계엄이다 그러면 위원님들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군인들이 그 문제에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81년도에 육군 소위가 돼 가지고 그 뒤로 늘 무슨 정치 군인, 정치 군인……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정말 박봉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과거의 일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명예를 써야 되느냐. 지금 후배들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호소를 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까지 계속 부인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저도 위원님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대과 없이 한 1년 국방부장관을 했는데 정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감사함을 표시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군에 대한 중립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마시라고 하는 장관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4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옛날에 군도 사과를 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은 무수히 많이 하고 다 단죄를 받았습니다, 사법에서.

○위원장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정치적인 중립이 자꾸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든 야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민한테 주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호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김민석 위원님께서 조금 더 하시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2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시지요. 한 3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장태완 전 장군님하고 국회의원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서.

우선 계엄이 논의될 수 없는 선진국이 됐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장관? 그러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미국은 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국방부장관으로 쓸까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7년 경과, 7년 이전에는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렇지만 썼던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선진국에서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이 확고히 갖춰져 있지요. 국회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차분하고 안정적인 답변 이것이 군과 국방부장관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계엄 얘기가 나왔습시다마는 지금은 제가 계엄을 묻지 않았습시다. 그냥 언제였는가를 물었습시다. 우리 군이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군기는 잘 갖춰져 있는가, 일반적인 사회의 상식과 통념과 행정조직의 운영으로 볼 때 통상적인가를 물었습시다. 그것이 잘못된다면 회사가 문란한 것이고 군이 잘못된다면 군기가 문란한 것이겠지요.

지난번 최근 말씀하신 경호처장 모임을 구두 승인하신 것이 언제지요? 아까 제가 물었습시다……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기분이 좀 가라앉으셨다면 사과까지 하셨으니깐.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답변을 하기 싫은 것인지 답변을 그런 사안은 안 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인지 셋 중에 어떤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민석 위원** 아까 답변 중에는 작년 말에 승인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씀……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작년 말에 승인하신 것 잘 기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말에 승인하신 것이 가장 최근 기억이실 테니까 그것을 하셨겠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연말인지 연시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기억이 회미합니다.

○**김민석 위원** 작년 연말인지 연시…… 아마 그것이 최근이니까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장관께서 기억하시는 것보다 훨씬 최근에 또 있습니다. 장관보다 제가 또는 저희 주변에서 군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더 알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임 장관도 후임 장관도 모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바로 사과할 정도의 감정 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건 다 무죄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문건이요 내란에 실제로 상응하는 행위까지 안 갔다는 점에서 검찰이

5년 만에 돌아온 분을 무혐의해 줬을 뿐이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조현천 재판 진행 중이고 그것 작성하고 은폐했던 분들은 유죄입니다. 장관도 안보실장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실도 가짜뉴스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아까 간접적 표현을 하셨는데 저를 지정해서 사과를 안 하시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셨는데 사과를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지난번에 제가 김용현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요구하지 않았고 그 사과를 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세를 저를 그냥 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국민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니다.

○유용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가 좀 있는데요.

○임종득 위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규백 위원 다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성일종 이제 종결하지요.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이 거의 한 분도 안 하셨으니까 두 분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우선 장관님……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유용원 위원님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지금 나가시는데 장관님, 부대에서 이렇게 회의하시고 할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부정기적으로 하실 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승인할 때도 있고 승인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네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 경호처장이 경호작전부대에서 하는 경우에 격려 행사든 당부든 그런 경우에 사전 저한테 보고가 되면 그렇게 하라고 승인하는 것이고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또 경호처장이 군을 잘 아는데 그런 결례를 할 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기왕 나온 김에 아까 사과, 제가 할 말은 있지만 원만함을 위해서 위원님께 했는데 또 그것을 그렇게까지 비꼬아서 말씀하시니까 참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의결하고 가시지요.

○황희 위원 의결을 빨리하시든가…… 지금 여기 여당 위원들 다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용원 위원 의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결을 하고 두 분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장관님, 긴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 군 정상화하고 강한 대비태세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관님 외교 경력이 없으시다는 지적들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에 대한 안목도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안보실장직 잘 수행하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 대부분 이석을 하셔서 좀 그런데 계엄령 관련해서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요.

○**위원장 성일종** 국민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깐 말씀하십시오.

○**유용원 위원** 아까 장관님께서 격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저도 심정적으로는 제가 군인 출신은 아니지만 군을 언론인으로 30여 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지금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계엄령 괴담은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고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예방주사 말씀도 하셨는데 예방주사도 적당히 맞아야지 너무 많이 맞으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되는 것이지요.

국방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괴담이 이어지는 것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다,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실로 며칠 사이에 야전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계엄령 괴담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에 있는 모 야전부대 소령님인데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만 그렇다고 옳고 그름마저 판단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저 역시 따르지 않습니다. 제발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이요.

대전 지역에 있는 어떤 중령 말씀인데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가지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경기도 쪽에 있는 한 부대의 대령님인데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격이 이를 허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군인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그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걸 조금 간부인데요. 한 대위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나 고충은 외면하고 계엄령이니 충암파니 이런 얘기들만 국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있는지 회의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야전에 있는 지휘관들이 지금 상당히 이런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사기도 저하되고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 생활한 지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오랜 의원 생활하신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도 앞에 계시지만 이제 정말 야당 위원들께서 군을 좀 생각하신다면 국방위 위원님들만이라도 계엄령 피담은 멈춰 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재임 기간 중에 상당히 엄중한 시기였는데 대비태세나 북방외교 그다음에 방산수출 쪽에 큰 성과를 남겼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야당 위원인 부승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야전에서도 다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또 안보, 외교, 보안, 통일 쪽을 다 총괄하는 안보실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더 큼니다.

몇 가지만 현안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사안들이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나 큼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와 관련된 팩트들을 정확히 아시고 대통령께 조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첫째는 KF-21 사업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 보고받아서 다 아시겠지만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1조 원 손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대통령님이나 우리 고위급 간부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조 원의 분담금 미납이 발생한 것 중에 8000억 원이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거예요. 그런 팩트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1조 원이 미납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방사청에서 물론 알아서 잘 하겠습니까마는 그 부분들을 잘 팔로 업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독도방어훈련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3무, 이번에 독도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에서 3무가 있다는데 인정 안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임종득 위원 그리고 그중에는 보면 독도훈련을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비공개로 실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만 비공개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민석 위원의 계엄 관련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했는데 저는 장관님의 심정을 백분 이해합니다. 같이 군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계엄이 갖는 무게감과 그 계엄 때문에 우리 직업군인들이 느꼈던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박근혜정부 때 국방비서관이었다는 이유로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에 가서 수차례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엄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수차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저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사람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계엄 피담을 통해서 군은 심각한 명예의 상처를 받고 사기가 저하됐고 또 연장선상에서 방첩 기능이 파괴됐습니다. 이제 겨우 복원하려고 했는데 또 생뚱맞게 계엄입니다. 계엄 피담 시즌2지요. 우리 군이 명예를 회복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일으키는 건지 저는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닌 김정은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동의합니다.

방금 지금 방첩 기능 자체의 강화를 방해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정보사가 지난 17년에 보안감사 외부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지금 7년간 못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사실상 계엄 문건 사건 때문에 기무사가 해체되고 방첩사 기능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정보사 군무원 기밀 누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체에 지금 국방부 훈련이 바뀌어져 가지고 방첩사의 외부 보안감사 기능 자체가 없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동의합니다.

즉각 개정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안보실장으로 가시면 저는 두 가지 쪽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북한의 핵 능력의 현실화 부분입니다. 북러 조약이 또 새로 맺어지고 해서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화된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응하는 모습을 모두 까발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으로 가시면 외부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도 제시해 주시고, 밖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챙기서 가지고 정말 북한의 핵 위협에 좀 더 고도화되고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아, 우리 정부가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이런 준비들을 해 왔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했구나’라는 것을 증명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의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 문제, 그냥 쉽게 봐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국방부장관을 하시면서도 느꼈겠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으로 가시면 그래도 범부처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조율하고 또 어필하고 이렇게 할 부분들의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초급 간부 사기 저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 사항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해서 아까 말씀한 독도에 대한 최근에 제 소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 인근을 국제 분쟁수역화할, 영토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작년 연말 연시 뜨거웠습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고쳤습니다.

그렇게 독도 분쟁수역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독도 분쟁수역화를 하려고 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서 독도방어훈련을 왜—사실과 다르게—예년보다 작게 했느냐,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독도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이슈화시켜서 독도를 국제적인 관심거리로 하는 것은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진짜 친일파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어느 분이 예방 차원에서 계엄을 던졌다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근거 없이 툭 던진 말에, 우리가 툭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이 우리 장병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군의 수장인 저부터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손상돼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 이런 걸 하나요? 그러면 툭 던져서 예방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종말이 안 오면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경고를 해서 세상에 종말이 안 왔다고 할 겁니까? 이걸 사이버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런 궤변으로 국군장병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국방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국군장병들이 24시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애쓰고 있는 이런 장병들의 노고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이러한 계엄으로 명예에 손상을 주거나 또는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군에서 늘상 있어 왔었던 그러한 격려 만찬이나 아니면 회의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저는 우리 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의 눈이 보여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군에 관계하시는 모든 지휘부 여러분들은 국민들이 늘 우리 군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그 신념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늘 지금처럼 국민을 위한 봉사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임무를 잘 마치시고 이제 안보실장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더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싶으셨을 텐데 워낙 정치적인 격랑 속에서 그 정쟁의 한 복판에 서시다 보니 퇴임을 하시고 또 이동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마 힘든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종료를 하시고 새로 가시는 안보실장 자리에서 더 많이 우리 군을 위해서 헌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위원장님, 제가 속기록에 정정을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까 사이비 종교, 뒷부분이 발음이 부정확해서 속기록을 잘못 남길 수 있어 정정을 합니다. 그러한 형태는 종종 사이비 종교인들이 무책임하게 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런 말을 혹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방이라는 말도 신중하게 국회의원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속기사분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을 의결하면서 첨부한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또 떠나시면서 마무리말씀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세심하게 심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소회를, 특별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방위에서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4년 반 지냈는데 그동안 대과 없이 의원직이나 장관직까지 모두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도 편달 그리고 국민들의 성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2023년 10월 7일 취임을 한 그날 아침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붙었던 불이 중동을 거쳐서 한반도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평화 유지는 북한을 억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제는 평화고 바로 그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응징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 응징은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태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북한이 믿어 줄 때 평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응징 태세를 갖기 위해서 장병들의 정신 무장, 강한 훈련 그리고 사기, 복지 그리고 전투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정 일은 과감히 없애고 쉴 때는 꼭 쉬어야 이게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AI 중심의 과학기술 강군을 이루기 위한 혁신 노력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혼자 힘만으로 우리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복원 및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 그리고 한-유엔사 회원국처럼 가치 공유국과의 안보 협력과 연대 등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도움 덕분에 어느 정도 대과 없이 할 수 있었고 이 미완의 여러 가지 숙제를 후임 김용현 후보자에게 물려주고 갑니다.

아마 예측건대 오늘 24시까지 청문회 송부가 안 되면 아마도 내일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시게 되면 아마 곧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떠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그전에는 군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떠나면 다시 국방부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구나. 정말 말 그대로 군복과 영원한 마지막 이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디서나 우리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성일종 신원식 장관님, 그동안 너무 많은 역할과 국가를 위해서 또 국회를 오가면서 큰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안보실장으로 가셔서도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종철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더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23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위사업청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잘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소위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심사하는 등 충실한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매서운 지적을 통해서 정부 측의 예산 집행 실태가 많이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측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김종철 병무청장님,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대식 강선영 김민석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박찬대 부승찬 성일종 안규백
유용원 임종득 조 국 한기호 허 영 황 희

○출장 위원(1인)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신원식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인사복지실장 김수삼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윤봉희

자원관리실장직무대리 이갑수

기획관리관 김경욱

계획예산관 신태복

인사기획관 오영대

보건복지관 김은성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병무청

청장 김종철

기획조정관 김용무

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입영동원국장 문경식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미래전력사업본부장 한경호

기반전력사업본부장직무대리 조훈희

기획조정관 홍미루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직무대리 이창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장직무대리 김양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7. 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7.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7.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이상 3건 8월 28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9)

이상 3건 8월 29일 회부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0)

이상 2건 8월 30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이상 3건 9월 2일 회부됨

2025년도 예산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0)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1)

이상 3건 9월 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2024. 8. 2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8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2024. 8. 30.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1)

9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고서 송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9. 2. 정부 제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4. 9. 2.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4년 재정 관련 자료

(2024. 9. 2.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이상 3건 9월 3일 송부됨